

펄프종이기술이 만난 제지인

학회의 국제화를 위해 헌신하신

윤 병 호 회장님

펄프종이기술은 펄프종이공학회장으로 또 펄프표백과 종이보존분야의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헌신하신 윤병호 회장님을 뵙기 위해 춘천으로 향했다. 윤회장님은 국제학술교류가 드물고 어려웠던 시기에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하셨던 적극성을 바탕으로 학회 처음으로 ISWPC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시기도 하였다. 아울러 전공분야 교재 출판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학술용어집 등의 발간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산업계를 위한 학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셨다. 특히 해외학술대회에 젊은 후속세대가 단순참가가 아닌 직접적인 토의참여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독려하시기도 하셨다. 윤회장님의 학문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욱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한다.



펄프종이기술: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장님의 고향 춘천에서 만나 뵈니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대부분의 회원 분들은 회장님을 잘 알겠지만 새로 가입한 젊은 신입회원들을 위해 회장님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호: 네, 저는 1964년 강원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석사 그리고 일본 나고야대학에서 1981년 목재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강원대 제지공학과 교수로 36년을 봉직하고 2007년 퇴임하였습니다. 현재는 강원대 산림대학장과 대학원장을 지냈고, 98년부터 2년간 펄프종이공학회장, 미국 TAPPI 국제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강원대 제지공학과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펄프종이기술: 교수님의 주된 연구분야는 어떤 것이었는지요?

“제지분야의 학문적 깊이와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윤병호: 제 주된 연구 분야는 펄프 표백과 목재화학이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표백제를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표백제의 작용기작을 규명하여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적인 새로운 표백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펄프 표백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자가 거의 없어, 사실상 제가 유일하게 이 분야를 꾸준히 탐구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펄프 제조 기술의 기반을 다지는 데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종이 보존’ 연구도 병행하였습니다. 종이는 단순한 산업 소재를 넘어 문화유산과 기록의 매체라는 점에서, 그 보존 기술을 확보하는 일은 학문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이후 제지 분야의 학문적 깊이와 다양성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펄프종이기술: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던 시기에는 연구지원이나 시설이 열악하여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요.

윤병호: 돌이켜보면, 연구 초기에는 연구 지원이나 전용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진

홍청, 서울대학교 화학과, 강원보건환경연구원 등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아 장비와 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지요.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것은 학생들의 성실한 노력과 열정이었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실험을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협력으로 메워 나갔던 과정이 지금도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러한 도전과 극복의 시간이 오히려 연구의 토대가 되었고, 오늘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펄프종이기술: 회장님께서는 해외연구경험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학술회의에 학생들에게 국제적 감각을 고양시킨 것은 큰 보람이었습니다.”

윤병호: 저는 일본 나고야대학, 영국 런던대학, 미국 ESPRI 연구소, 스웨덴 왕립공과대학 등에서 7년간 학위과정 연구원 및 연구교수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프랑스, 미국, 일본, 대만, 중국,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의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해외에서 진행되는 최신 연구 동향을 직접 접하고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학술 저널보다 국제 학술회의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훨씬 더 신속하게 파악 할 수 있었기에,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학술회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TAPPI 국제위원(펄프)으로서의 회의 참석과 캐나다 JPPS 패널리스트로서의 활동은 비록 논문 두 편에 국한된 경험이었으나, 제 전공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를 돌아보면 다른 교수님들께서는 국제적 활동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이러한 경험은 더욱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교수 개인의 참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국제 학문과 연구 무대에 일찍이 접근할수록 시야가 넓어지고, 세계적 흐름을 빠르게 체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발표를 넘어 질문과 토론 과정에도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들이켜 보아도, 후학들에게 국제 학술 교류 경험을 제공하는 일은 연구자 양성에 있어 가장 값진 투자였다고 확신합니다.

펄프종이기술: 해외에서의 경험으로 학회도 더욱 국제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깊어지셨나 봅니다.

윤병호: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의 경험을 통해 학회 역시 더욱 국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학술 저널에 비해 학술회의는 연구 동향을 훨씬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연구 방향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수행된 결과가 학술 발표는 가능하지만, 학술지 게재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 학회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연구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고 나아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학회도 더욱 국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펄프종이기술: 학회장으로서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는지요?

“처음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기술교육과 전문서적 발간 등이 보람이었습니다.”

윤병호: 학회장을 역임하면서 학술회의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연 1회 개최하던 국내 학술대회를 춘계와 추계로 확대하여 연2회로 정례화하였고, 1999년에는 일본과 공동으로 ISWPC 국제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회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고, 연구자들이 더 자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학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였고, 이를 위해 각 제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후원을 요청드렸습니다. 다행히 많은 기업들이 학회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제지사 대표님들의 모임을 주선하면서 학회와 기업 간의 유대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 사이에서도 상호 교류와 협력이 촉진되어 기존에 다소 소원했던 관계들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제지기술자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산업 현장의 인력들이 최신 학문과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문적 성과가 단순히 연구자들 사이에 그치지 않고,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어 실질적인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제지 분야의 서적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학회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출판 사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제지용어사전을 포함해 두 권의 서적을 발간하여 학문적 자료를 체계화하고 현장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학회장으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학계와 산업체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어 학문적·산업적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기업 간 협력 분위기 조성과 제지기술자 교육 및 서적 출판을 통해 연구와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은 매우 뜻깊은 성과로 기억됩니다.

펄프종이기술: 큰 국제학술대회를 치르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부분은?

“국제학회 개최는 학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윤병호: 큰 국제학술대회를 치르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부분은, 우리 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학회의 성과와 역량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학문적 신뢰를 확립할 수 있었고, 동시에 국내 연구자들이 세계적 학문 공동체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지금도 큰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펄프종이기술: 어려움과 아쉬움도 있었겠지요?

윤병호: 물론 어려움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국외 연구자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즉 주소록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미국, 캐나다의 TAPPI에 주소록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참석한 학회에서 받은 발표자 명단이나 프로시딩(proceedings)에 실린 주소지, 또는 국제 학술지에 기재된 정보를 토대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국제 주소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러한 과정은 당시에는 번거롭고 쉽지 않았지만, 동시에 국제 네트워크를 하나씩 쌓아가는 소중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펄프종이기술: 회장님 시기에는 국제활동이란 것이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아닌가 합니다.

윤병호: 맞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았던 시기는 지금과 비교하면 국제 활동이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할 만큼의 연구 역량과 성과가 아직 충분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고, 국제 학회에서 한국 연구자들에 대한 인적 정보나 연구 성과도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했을 때를 떠올려보면, 한국에서는 제지 기업 종사자 몇 분만이 참가하셨는데, 주최 측에서도 한국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나 주소록이 전혀 없었기에 기업을 통해서만 통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얻을 수 없었던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에, 정보 교류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펄프종이기술: 퇴임하신 후 이디오피아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윤병호: 퇴직 후에는 국제농촌개발협력단(KOICA, IIRD) 전문위원으로서 에티오피아 짐마대학교에 본부를 두고



영농 개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한국의 과학기술한림원 회원임을 제출한 이력서를 통해 알게 된 대학 측의 요청으로, 대학원 과정에 목재화학과 펄프학 과목을 개설하여 현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선진국으로부터 기부된 연구설비들을 점검하고 운용 방법을 알려주어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직접 실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학문적 지원뿐 아니라 교육 여전 개선에도 보탬이 되고자 짐마 중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눈빛은 누구보다 진지하고 뜨거웠습니다. 그 열정을 보면서 학문은 연구실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와 미래 세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매우 값지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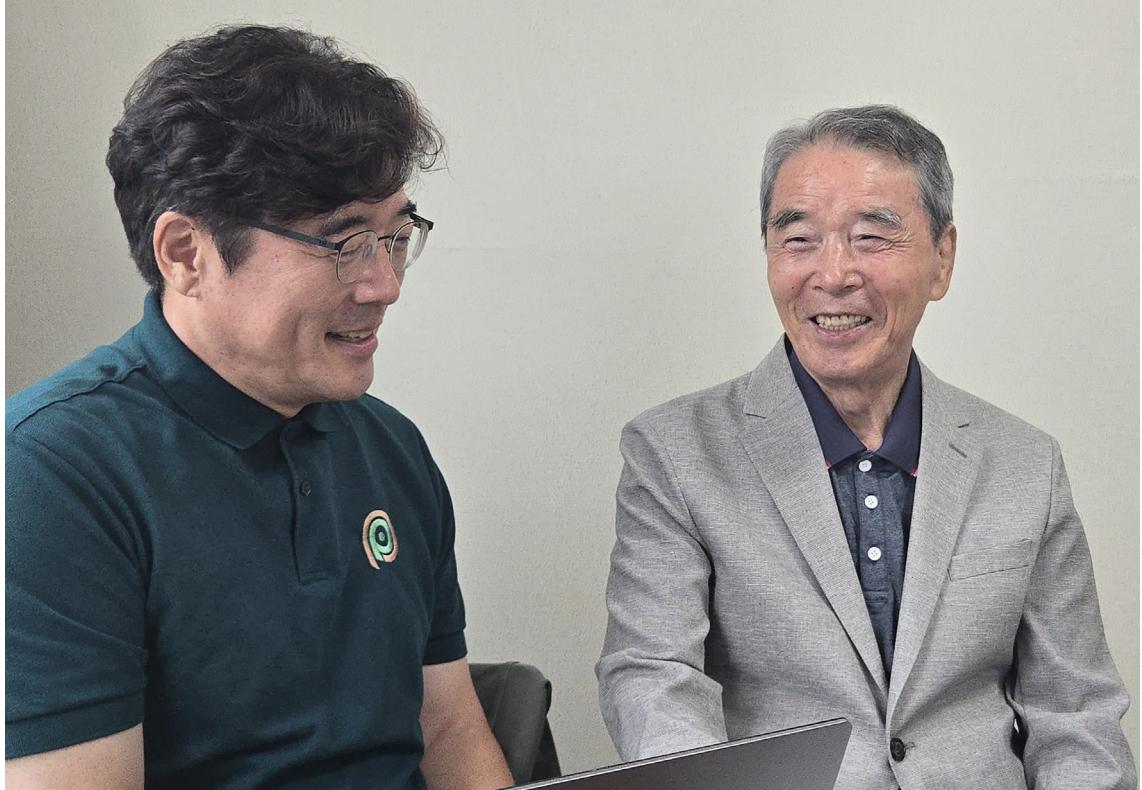
펄프종이기술: 요즘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윤병호: 요즘은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을 조화롭게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와 테니스를 통해 꾸준히 몸을 단련하고 있고, 틈틈이 바둑을 두며 정신적 여유도 찾고 있습니다. 또한 후학들을 위해 매해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살아 있는 한 이를 꾸준히 이어갈 생각입니다. 젊은 세대가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격려와 힘을 보태는 것이야말로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펄프종이기술: 요즘 후진들에게 좋은 충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눈앞의 성과보다는 먼 장래를 보며
꾸준히 정진하길 바랍니다.”**

윤병호: 대학에서는 교수가 연구 프로젝트의 큰 틀을 설정하고, 실제 실험은 주로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실험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단순히 지시받은 일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간결과를 분석하여 자신의 견해와 해석을 덧붙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또한 연구자라면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면 장래를 내다보며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학문은 하루아침에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기에, 긴 호흡의 노력과 끈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직장에 나가서도 본인의 연구와 직무가 단지 개인의 안위나 영달에 그치지 않고, 동료들과의 협력, 나아가 회사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펄프종이기술: 학회를 위해서도 좋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병호: 학회가 지닌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동시에 산업계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

니다. 따라서 학회는 학계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회원 한 분 한 분이 개인 연구와 여러 용무로 바쁘시겠지만, 학회가 발전하는 것은 곧 제지 학문 분야 전체가 성장하는 길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연구에만 머무르지 말고, 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문의 진보와 산업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회의 발전이 곧 우리 학문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점을 늘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펄프종이기술: 윤회장님의 펄프종이공학회 그리고 펄프종이기술분야에 남다른 헌신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과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건승하시고, 앞으로도 후학들에게 좋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 대답: 펄프종이기술 편집위원장 이학래